

2004년 총선

공천반대 1차 명단

(16대 국회의원)

2004. 2. 5.

2004총선시민연대

www.RedCard2004.net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전화 02)732-9787~91,723-0808 / 팩스 02)723-0584

자료집 목차

| | | |
|---------------------|---------|----|
| 식 | 순 | 4 |
| 공천반대자 선정의 변 | | 5 |
| 선 정 경 위 | | 8 |
|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 | 23 |
| 공천반대인사 명단 | | 26 |
|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사유 『요약』 | | 29 |
| [부록1] 유권자위원회 | | 50 |
| [부록2] 공천반대인사 최종심사자료 | | 51 |

식 순

- 인 사 말
- 선정 기준 및 과정
- 명 단 발 표
- 선 정 의 변
- 호 소 문 발 표
- 후 속 계 획 발 표
- 질 의 응 답

공천반대자 선정의 변

다시 한번 희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인은 모범이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나 접할만한 식상한 경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현실 정치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정치인은 반칙과 탈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정치에 대한 희망의 꿈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노와 좌절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4년 전, 우리는 같은 이유로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낙선운동은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 이뤄진 사상 초유의 유권자 행동으로 기억됩니다. 실제 낙선대상자의 대다수를 선거에서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대하면서 2000총선연대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우리로서는 깊은 자괴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총선연대의 진정한 성과는 정치개혁이 유권자의 참여로만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2004총선시민연대는 16대 현역의원 중 공천되어서는 안될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선정한 공천부적격자는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최소한에 불과합니다. 또한 2000총선연대 낙선대상자 중 일부도 빠져있습니다. 명단에 빠진 정치인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갈이, 판갈이로 표현되듯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정치인 모두를 향해 있음에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선부른 판단과 과도한 논란이 우리의 대의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좀 더 촘촘하고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고 그만큼 이번 명단 작성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신중함과 엄밀함, 공명정대함을 기하려 노력했습니다.

2000총선시민연대는 공천반대자 선정과정을 ‘전쟁 같은 불면의 밤’에 빗댄 바 있습니다.

니다 이번 명단선정과정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명감, 책임감, 그리고 만약 있을지도 모를 실수를 막기 위한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자료수집부터 정리, 분석, 평가, 기준적용, 대상자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았습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기록에의 접근은 비늘구멍만큼이나 좁았고, 그마저도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은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을 꼼꼼히 검색했고, 국회의 회의록을 조사해 발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부패, 선거법 위반 사건은 관련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꼼꼼히 일독 했고, 때론 취재 기자에게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원들의 반론과 소명을 요청했으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재질의뢰를 통해 이미 수집한 자료와 비교해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시민적 상식에 입각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법률지원단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공천반대 사유와 기준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가 선정기준과 부적격 대상인사를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정치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정치의 문제와 정치인의 병폐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 할 수 있는 법안발의와 본회의 출석 실태는 그야말로 낙제수준이었습니다. 160여명의 의원이 1년에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고, 30여명의 의원은 4년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정치인 역시 50여명에 달합니다. 출발부터 불공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일어난 막말과 폭언, 몸싸움과 같은 추태 역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비하발언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동료 여성위원을 모욕하는 성희롱 발언도 등장합니다. 망국적 병폐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 무차별적 색깔공세,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 없는 폭로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쫓아 이리저리 당적을 옮기거나, 합의를 깨고 승패에 불복하는 철새정치인도 상당수입니다. 심지어 공조라는 이름으로

의원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패와 비리 행위는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경악할만한 것입니다. 휴게소, 지하주차장, 호텔커피숍, 사과박스, 쇼핑백, 차떼기, 책떼기 등은 이제 부패와 동의어가 된 듯 합니다. 그러나 부패연루 혐의자 모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실정법의 해석을 판단의 전부로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있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치인에서 과거 검찰 소환 혹은 구속에 앞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고개를 떨구던 모습을 지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중 추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정치인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퇴출 운동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면책특권을 이용한 소환 및 재판 지연 행위 등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특권적 행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해당 정치인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과물을 유권자와 개별정치인, 각 정당에 내어놓습니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공천부적격자로 선정된 인사 이외의 정치인 정보도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이미 각 정당은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정당이 내려야 할 첫 번째 결정은 부패, 무능, 저질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작업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공익적 양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 명단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나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치인들 역시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낙천·낙선 운동은 미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4년 전에 낙선운동이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경험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를 외면할 수 없었으며 유권자의 분노와 실망을 눈감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정치와 정치인을 향해 쏟아냈던 분노를 이제 정치개혁의 희망으로 바뀌어나가야 합니다. 기억하고 심판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오늘의 명단 발표가 지난 2000년에 이어 재차 유권자 혁명의 물결로 이어져 그토록 원하던 부패 정치 청산, 정치개혁의 가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4 총선시민연대

선 정 경 위

1.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과 낙천낙선운동 추진계획

- 전국의 273개 시민사회단체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들을 정치현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2004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 2004총선시민연대는 사회 각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천반대 인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철저한 심의, 검증 과정을 거쳐 공천 단계와 본선단계에 맞춰 낙천낙선대상자를 발표할 것입니다.
- 정치부패의 온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돈 선거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꾸리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붓는 선거전이 반복되는 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감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부패정치·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행동단을 조직하여 경선 단계에서부터 밀착감시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 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시킨다는 목표아래 강력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입니다.
- 총선시민연대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네티즌들의 힘을 모아 네티즌 직접행동 온라인 캠페인 'Click&Clean 네티즌 천만 클릭'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네티즌 유권자 선언, 정당평가 캠페인, 대학생 유권자 온라인 캠페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네티즌을 조직해 지체된 정치사회의 개혁을 위한 온라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 공천 반대 정치인 조사 및 선정

1) 공천반대자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2004 총선정책팀 구성

-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12월 26일 낙천낙선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자료조사 작업을 진행할 '2004 총선정책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총선정책팀'의 역할은 16대 현역의원의 각종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 분류, 입력, 정리하여 2004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심의과정에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총선정책팀'은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이 총괄 팀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가 부팀장, 전담팀 2인(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팀장, 최한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간사)을 중심으로 강태규, 구재천, 권범철, 박인선, 박제홍, 송상교, 송지선, 신원선, 유선화, 이민아, 이민정, 이상미, 이영주, 조경미, 최승원, 최은아 등 20여명의 자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자료 정리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백승헌 변호사 (총선연대 법률지원단장)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 1차로 정리된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 1차 낙천대상자 선정의 예정된 절차에 따라 정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의 검토, 유권자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체계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② 1차 조사의 대상 및 기간

- 조사기간 :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90여 일간
 - 기초자료 조사기간 : 2002년 11월 1일 - 12월 20일
 - 본 조사기간 : 2002년 12월 26일 - 1월 31일
- 조사대상 :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307명

③ 조사 자료

- 16대 국회 의정활동 기록 및 의정평가자료 중 다음의 자료
 - 16대 국회 속기록 및 출석기록(본회의, 상임위) 자료
 - 16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자료
 - 16대 국회 상임위 이동 관련 자료
 - 16대 국회의원 재산, 납세, 병역, 전과 자료
 - 16대 국회 관련 국회홈페이지 통계 자료
 - 16대 국회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자료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전체 (2000년부터 2003년)
 - 국가보위입법회의 80-81년 입법자료
- 관련 언론 자료
 - 90-04년 모든 일간지 신문기사 (중앙지, 지방지)
 - 주요월간지(80-04년 기사 중 관련기사 전체), 주요 주간지(93년 이후 관련기사 전체) 및 학술지
- 각종 판례 등 법률 문헌
 - 부패, 비리 사건 관련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문
 -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 및 검찰, 선관위의 국정감사제출자료
- 시민사회단체 의정 활동 모니터 보고서 일체
 - 2000총선시민연대 자료 일체

- 2000국감시민연대 평가보고서 일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의정감시자료실, 부패인물사건D/B 자료 일체
- 각 지역단체 제공, 지역구 의원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 관련 자료
- 각 언론사 국회의원 및 의정활동 평가자료

○ 국회의원 소명자료 : 총58건

○ 각종 제보자료 : 총24건 (단체 : 11건 / 개인 : 13건)

④ 자료검토 상의 특이사항

- 부패, 비리 사건은 80년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관련사건의 공소장, 판결문 등을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5대, 16대 총선 및 그 기간 중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사안은 국정감사제출자료를 토대로 파악하였습니다.
-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는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각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년간 모니터 한 주요법안(혹은 정책)을 중심으로 의원 개개인의 입장과 태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반하거나 국회 표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국회기록자료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 가장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 국회는 의안심사에 있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소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의정평가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 본회의 출결현황은 2000년 16대 국회 개원이후의 매 회별 출결현황을 국회공보를 통해 조사하여 통계작업을 하였으며, 의원별 대표법안발의 현황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을 인용하였습니다.

- 국회의원의 병역, 재산공개 사항 등은 관보와 국회공보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재산자료의 경우 현행 매해 지난 연도 대비 변동분만 신고토록 되어 있어 각 의원의 재산총액은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 ‘총선정책팀’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 모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재질의를 통해 재차 확인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부패,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검찰수사 혹은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본인이 혐의사실이나 기소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제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접수되었으나 시민단체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추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언론이나 법원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만을 활용하였습니다.

2) 선정과정 및 절차

○ 낙천대상자 선정기준 여론조사 실시

-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낙천낙선 정치인 선정기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 1. 17~18, 양일간)
- 여론조사 결과 △뇌물·불법자금 등에 연루된 부정부패 정치인(77.5%), △재산, 병역, 납세 등에 문제가 있거나, 욕설, 몸싸움, 상대방 비하 등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32.2%), △철새, 색깔론,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 구시대적인 정치인(28.7%),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정치인(17.5%),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정치인(12.3%), △군사 쿠데타나 반인권적인 공안사건에 직접 관여한 정치인(10.8%), △개혁정책이나 법안에 반대한 정치인(8.5%)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낙천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7가지 공천반대인사 선정 주요 심사기준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료조사를 진행한 결과, 135명의 정치인이 '검토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선정책팀은 1월 14일부터 2월 4일 오후까지 접수한 58건의 정치인 소명과 25건의 단체 및 시민의 제보를 검토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101명의 '주요검토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 2004년 2월 3일 2004총선시민연대 발족 직후 총선연대 전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위의 7가지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용 기준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 2004년 2월 4일 오후 6시, 서울 봉도수련원에서 유권자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와 정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대표자회의를 거쳐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추려진 '주요검토 대상자' 101명 각각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수인에 대한 투표 등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유

권자위원회의 최종의견을 대표자회의에 전달하였습니다.

- 이어 2월 4일 오후 11시 30분부터 2월 5일 02시 30분까지 '공동대표단, 집행위원, 정책위원, 법률지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유권자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을 검토하여 2004총선시민연대 1차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확정 하였습니다.

3. 낙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용기준

1) 공천 반대 선정 기준 (요약)

- 부패·비리행위
 - 불법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알선수재 등 공직범죄,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 연루사실
- 선거법 위반행위
 -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혹은 부심판된 사건
 - 17대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의 경고, 고발 사건
-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 출석률, 법안발의건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있어 불성실
 - 날치기, 방탄국회, 근거 없는 폭로 등 반의회적 행위와 지역감정 선동, 색갈론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반유권자적 행위
 -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이 권력을 쫓는 철새정치 행위
-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시민사회가 중심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개악을 주도한 행위
- 도덕성 및 자질
 - 욕설, 몸싸움, 성희롱, 차별발언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
 - 병역, 납세 등의 의무이행에 불성실하거나 재산, 경력에 있어 비도덕적 행태.

이상 6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였습니다.

- ※ 낙천대상자 선정은 2004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단과 상임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선정하되, 형평성, 적정성, 국민감정 등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거치고, 유권자위원회가 심의하고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 공천반대 기준의 적용

○ 총론 및 기준 적용

- △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반의회·반유권자 행위 중 경선불복종 및 반복적 철세정치 행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우선기준으로 적용하였고, 다른 기준은 병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이는 2000총선연대의 기준적용 사례, 여론조사 결과, 참여단체 의견, 유권자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공천반대자 선정에 있어 직책의 고하, 정당간 안배 등과 같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였습니다.
- 부패행위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정치인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주장이 엇갈려 불가피하게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낙천 혹은 낙선 대상자로 선정, 퇴출 운동을 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합니다. 기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낙천낙선 대상자로 선정기로 하였습니다.
- 아래 선정된 공천부적격자 및 선정근거 외에도 그 동안 자료조사를 통해 밝혀진 각종 정치인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다른 경로를 통해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 부패, 비리 연루행위는 낙천대상자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차떼기, 책떼기 등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따른 부패정치인 퇴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총선시민연대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패연루 정치인에 대한 낙천, 낙선 요구가 압도적입니다.
-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부패, 비리 연루행위는 상급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있어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뇌물, 알선수재 등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에서 밝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반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이 불법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수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천반대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중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한 경우는 낙천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두고 있으나 본인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자금 수수사실은 시인하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에는 정치자금으로 준용해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공천반대자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기타 공직 진출 이전에 행한 개인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비록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떡값, 전별금 수수 등 일반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관행화 된 부패·비리 행위를 저지른 정치인 역시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해 낙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반의회, 반유권자 행위와 관련해 경선불복 행위 및 반복적인 철새정치 행태를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경선불복 등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 정치인의 행동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 정치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높은 비판 여론을 고려하여 경선불복 행위자는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권력을 쫓아 이당, 저당을 기웃거리는 자세 추종적 정치행태와 정치인들의 원칙 없는 이합집산과 같은 정치행보가 유권자의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명백한 반유권자적 행위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철새정치 행태를 한 인사는 우선적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헌정파괴, 반인권 전력은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군사쿠데타 등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시킨 구시대 정치인,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반인권적 행적을 지닌 인사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습니다.
- 2000총선시민연대에 이어 5·16군사쿠데타 주역,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관계자들은 모두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으며, 이 밖에도 각종 공안사건, 시국사건에서 고문, 은폐·조작, 가혹행위 등에 직접 가담하거나 책임이 있는 자들 역시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거법 위반은 당선무효형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대상기간은 15, 16대 총선 중에 이뤄진 위반행위로 제한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및 선거법상 연대책임이 있는 자가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경우는 사면, 복권 등과 관계없이 모두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그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은 다른 선정기준과 관련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단 선거법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만 향후 선거운동 기간 중에 돈 선거 행위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는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의정활동 불성실과 지역감정선동·색깔론 등 반의회적 행위는 다른 부적격 사유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반대 선정기준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부패행위에 이어 의정활동에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정치인에 대한 퇴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행정감시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의원의 특권만을 누리거나 근거 없는 폭로, 지역감정 선동, 색깔 공세 등으로 반사적 정치이익만을 쫓고 있는데 대한 유권자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 이런 여론을 반영해 의정활동 성실성의 기본척도가 되는 본회의 출석이나 대표법안 발의 수에 있어서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예컨대 출석률이 저조하면서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다른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반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의 빈도나 수위는 많이 줄었지만 각종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언행

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정도가 심한 사례를 선별, 다른 사유와 병합하여 공천부적격자 선정근거로 삼았으며, 색깔론 발언으로 수구냉전적 이념공세를 벌이거나,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 없는 폭로와 같은 반의회적 행위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다른 사유와 함께 고려하여 공천부적격자 선정근거로 삼았습니다.

○ 도덕성 및 자질과 관련해 성희롱, 비하발언, 욕설 등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다른 부적격사유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반대 선정기준의 하나로 적용하였습니다.

- 국회의원이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의 성실성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시민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결격사유를 적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정보로만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16대 의정활동과 관련해 보유재산과 직무간에 발생한 이해충돌은 다른 부적격 사유와 함께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검토하였습니다.
- 한편 의정활동 중 욕설(폭언, 막말), 몸싸움, 성희롱, 차별(비하)발언 등으로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거나 자질부족을 드러낸 의원은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다른 부적격 사유와 종합해 낙천대상자 선정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를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를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 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의 경우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표결기록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 참여하는 단체

들간의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법안·정책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태도를 다른 부적격 사유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3) 선정 결과

○ 공천반대인사 : 총 66명 선정

<당별 분포>

- 한나라당 : 32명
- 새천년민주당 : 20명
- 열린우리당 : 7명
- 자민련 : 3명
- 국민통합21 : 1명
- 하나로국민연합 : 1명
- 무소속 : 2명

<선수별 분포>

- 초선 : 19명
- 재선 : 19명
- 3선 : 16명
- 4선 : 6명
- 5선 : 3명
- 6선 이상 : 3명

<검토대상 제외자 명단 : 총 49 명 >

※ 불출마선언, 정계은퇴선언, 사망, 외병, 피선거권 제한 등으로 불출마가 예상되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명단

○ 불출마선언 및 정계은퇴 (2/4일 현재, 39명)

강삼재 강창성 김동욱 김영구 김용환 김운용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도종이 목요상 박관용 박종우 박현기 서정화 설송웅 손희정 송석찬
송영진 신경식 신영균 양정규 오세훈 유홍수 윤여준 윤영택 이연숙
이원성 이재정 이주영 이창복 장성원 장태완 정문화 정창화 주진우
천용택 한승수 현승일

○ 피선거권 제한명단 (6명)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당적은 당선무효형 선고당시 기준임)

정인봉(한나라당) 곽치영(민주당) 박용호(민주당) 유성근(한나라당)
장정언(민주당) 김윤식(한나라당)

○ 사망(4명)

김태호 손태인 심규섭 황승민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행진에 다 함께 떨쳐나섭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3600만 유권자 여러분!

4년 전 오늘 부패정치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뜨거운 함성이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4년 전 우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낡고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메아리 없는 공허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던 낡은 유세관은 "바뀌! 다 바뀌!"를 연호하는 시민의 목소리로 메아리쳤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옐로우 카드와 레드카드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외쳤던 정치개혁, 부패추방의 그 함성! 전국에서 우리의 한 표 한 표로 70%의 부적격의원을 퇴출 시켜냈던 우리 스스로의 힘을!

2000년 낙천낙선운동. 그것은 유권자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의 방관자, 역사의 소외자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2000년의 낙천낙선운동은 우리 유권자가 객석에서 무대로, 통치의 대상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당당히 등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거리 정치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명백한 진실을 옴 몸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돈으로 표를 사고 지역감정을 내세워 손쉽게 금뱃지를 달았던 '좋은 시절'은 끝났다는 사실을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투표결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변화된 시대와 민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두려움은 잠깐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나라 정치인들은 총선을 통해 전국 3600만 유권자들이 분명히 보여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16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퍼나르는가 하면 의원의 특권을 남용하여 이권에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부패한 동료의원을 감싸 자신이 제정한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적반하장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식이하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의원을 꺾주고 받는가하면 심지어 국회표결도 대신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유권자를 조롱하였습니다. 대세를 좇아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철새행각 역시 반복했습니다. 16대 국회는 밤낮 개혁을 말하면서도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정치개혁요구에는 눈과 귀를 닫아걸고 말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지역구 의원 숫자를 두고 먹살잡이를 하는 꼴불견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총선혁명을 이루어낸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낡은 정치인들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태풍이 일회적 사건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걱정이라면서 짐짓 슬픈 표정을 연출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 냉소와 절망감이 유권자들의 심판의지를 좀먹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낡은 정당들은 이미 구시대의 박물관에 안치된 지역감정을 부활시켜서라도 역사의 발전을 붙잡아두려고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고 부패한 그들의 헛된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그들의 부패와 무능, 반개혁, 반유권자적인 의정활동의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매서운 유권자의 심판을 내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소수이지만 성실히 땀흘린 충직한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3600만 유권자 여러분!

2004년 총선에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몰아냄으로써 2000년의 총선혁명이 우연이 아니며 진정한 유권자 독립선언의 신호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 국민이 함께 하는 낙천낙선운동으로 변화할 줄 모르는 낡은 정치인들과 정당들

에게 변화된 시대와 전진하는 역사의 힘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줍시다. 2004년 총
선은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특권정치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3600만 유권자 여러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가슴 벅찬 정치개혁 행진에 다 함께 떨쳐 일어납시다.

2004. 2. 5.

2004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

공천반대인사 명단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3.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4.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5.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7.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8.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9.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10.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11.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12.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13.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14.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15.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16.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17.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18.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19.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20.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1.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22.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23.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24.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25.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26.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28.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29.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30.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3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32.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33.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10대)
34.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35.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36.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37.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38.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39.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40.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41.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42.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43.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4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45.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46.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4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48.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49.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50.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51.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52.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53.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54.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 55.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 · 15 · 14 · 13 · 12대)
- 56.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 · 15대)
- 57.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 · 14 · 8대)
- 58. 최명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 · 12 · 11대)
- 59.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 60.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 · 15대)
- 6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 · 15 · 14대)
- 62.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 · 15 · 14 · 11대)
- 63.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 · 15 · 14대)
- 64.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 · 15 · 14대)
- 65. 홍문중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 · 15대)
- 66.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1차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요약』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3.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4.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5.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주)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

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7.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8.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9.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10.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11.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군·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 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2.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스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13.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

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14.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15.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6.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17.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18.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19.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20.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①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②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 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③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21.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22.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②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23.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중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레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24.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25.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26.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①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②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28.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②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29.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③ 재산불성실 신고

30.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3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②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③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겉레같은 게, 싸가지 없어”라고 발언

32.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33.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을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34.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35.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36.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37.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38.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

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39.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정 238만원)

40.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41.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42.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43.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 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참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4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45.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46.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

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④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4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 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48.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 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

부과

49.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50.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51.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52.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

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53.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54.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55.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56.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

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간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간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57.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앓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58.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59.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 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60.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6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62.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뿔뿔 뿔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기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기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63.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64.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①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②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65.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 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66.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부록 1]

유권자위원회

○ 구성 <성, 연령, 직업, 광역별 구성비>

2000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의 표본을 기초로 하여 2004총선시민연대 참가단체 소속 회원과 일반시민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활동

- 표본 구성비 설정 : 2004. 1. 12 - 2004. 2. 3
- 유권자위원회 구성 : 2004. 1. 10 - 2004. 2. 4
- 2003. 2. 4 유권자위원회 개최 : 98명 참석

[부록 1]

2004총선시민연대 1차 공천반대인사 최종 심사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된 사실이 모두 공천반대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2건
- 3) 출결 : 출석176회, 출장 3회, 청가 18회, 결석 5회, 무단결석을 2.48% (225위)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 의정활동/개혁성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 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도덕성/사질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아무개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신한국당→한나라당(합당)
- 2) 법안 대표 발의 : 0건
- 3) 출결 : 출석170회, 출장 10회, 청가 15회, 결석 7회, 무단결석을 3.47% (177위)

3.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 2) 법안 대표 발의 : 7건
- 3) 출결 : 출석177회, 출장 1회, 청가 9회, 결석 15회, 무단결석을 7.43% (78위)

4.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 부패·비리 행위

<포철회장 재직 당시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0만원 선고>

- 포철 회장으로 있던 94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 지급된 기밀비 4억2천만원중 2억 원을 봉급계좌로 입금시켜 생활비로 유용하고 나머지 2억2천만원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한 혐의 등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항소기각으로 확정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기밀비 사용용도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전례가 거의 없음. 이는 다분히 표적사정임

■ 반인권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당시 국책연구소인 KDI 원장으로서 입법회의 참석 불가피. 관행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입법회의 등 경제 관련 각종 위원회에 비상임으로 참여하였음.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발언>

- 2002년 1월, TK구심점론 역설 "당권·대권 분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TK표를 줄 수 없다"
- 2001년 7월 27일,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색깔론 발언>

- 2001년 7월 31일,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강보험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다음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전교조는 사회주의 집단’이라고 했다가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려던 것이 마치 전교조 전체를 사회주의 집단으로 매도한 것처럼 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명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4건
- 3) 출결 : 출석170회, 출장 0회, 청가 4회, 결석 28회, 무단결석을 13.86% (34위)

5.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세정치행태>

-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 소명 : 오만에 빠진 제 1당의 정국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국안정이 필요한 때 과감히 소신을 실천
-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01)했다가 복당(02. 11. 26)
 - ▲ 소명 : 개혁의 지속과 남북화해정책의 정착을 위해 정권재창출은 시대적 소명이었으며 거대야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필연적 이었으며 이를 위해 후보단일화 활동을 함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당명변경)→한나라당(합당)→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2) 법안 대표발의 : 15건

3) 출결 : 출석186회, 출장 3회, 청가 3회, 결석 10회, 무단결석을 4.95% (145위)

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 부패·비리 행위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

- 1996년 5월, (주)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알선수재)

-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2심 : 벌금 1천만원, 추징 2천만원(확정)

■ 선거법위반

-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

-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 반의회/반유권자

<근거 없는 폭로>

-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 등 이적반역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이 출입국관리기록 등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박하자 "유 의원이 제시한 출입국관리소 증명서를 보고, 당에 제보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며 "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밝힘

■ 도덕성/사질

<여성비하 발언>

- 2002년 7월 12일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03. 3. 1. 여성연합은 김 의원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재산불성실 신고>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합당)→신한국당(당명변경)→한나라당(합당)
- 2) 법안 대표발의 : 2건
- 3) 출결 : 출석189회, 출장 2회, 청가 7회, 결석 4회, 무단결석을 1.98% (250위)

7.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년 새천년민주당 복당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국민통합21→새천년민주

당

- 2) 법안 대표발의 : 4건
- 3) 출결 : 출석93회, 출장 1회, 청가 10회, 결석 8회, 무단결석을 7.14% (84위)
- 4) 2002년 7월 8일 16대 국회의원 사직

8.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 부패·비리 행위

<알선수재(특경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 2000년 04월 11일 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 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년 5월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 같은 해 6월 21일 대양 상호신용금고 김 모씨로부터 채권은행에 이야기하여 D통신 OA 부분을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평화민주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당명변경)
- 2) 법안 대표발의 : 1건
- 3) 출결 : 출석114회, 출장 1회, 청가 12회, 결석 75회, 무단결석을 37.13% (1위)

9.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 2002년 11월 초순경 최돈웅 의원에게 SK에 대선자금 100억원 기부를 부탁하여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현금을 받아 이재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건네주게 한 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 의정활동/개혁성

- 법안 대표발의 0건
- 출석율 81.19%, 무단결석율 15.35% (26위, 202회 중 31회 결석)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자유당→신한국당(당명변경)→한나라당(합당)
- 2) 법안 대표발의 : 0건
- 3) 출결 : 출석164회, 출장 5회, 청가 2회, 결석 31회, 무단결석율 15.35% (26위)

10.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 반의회/반유권자

<색깔론>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제소

-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했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무소속→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1건
- 3) 출결 : 출석179회, 출장 5회, 청가 14회, 결석 4회, 무단결석을 1.98% (249위)

11.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 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주의 조장 발언>

- 2002년 6월 24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 의정활동/개혁성

<개리멘더링 법안 대표발의>

- 2003년 7월 2일 이웃 시·군·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 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합당)→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3건
- 3) 출결 : 출석193회, 출장 2회, 청가 2회, 결석 5회, 무단결석을 2.48% (226위)

12.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 부패·비리행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스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

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 “(하이테크 하우스 박회장이 준) 6억원은 당시 박회장을 비롯한 12~14명이 한 의원 추대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이었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영수증 미처리 시인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입당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8건
- 3) 출결 : 출석128회, 출장 0회, 청가 30회, 결석 44회, 무단결석을 21.78% (3위)

13.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 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 5.16 군사쿠데타 주도
-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부패·비리 행위

-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의혹사건(새나라 자동차사건/위커힐 사건/증권파동사건/빠짱코 사건) 주역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색깔론 발언>

- 2002년 1월 15일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 의정활동/개혁성

<의정활동>

- 법안발의 0건
- 출석률 54.46%, 무단결석률 20.79%(6위, 202회 중 42회 결석)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공화당→신민주공화당(합당)→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
- 2) 법안 대표발의 : 0건
- 3) 출결 : 출석110회, 출장 6회, 청가 44회, 결석 42회, 무단결석률 20.79% (6위)

14.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 부패·비리 행위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

-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19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 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1995년 8.15 특별사면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정당→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 2) 법안 대표발의 : 3건
- 3) 출결 : 출석169회, 출장 3회, 청가 18회, 결석 12회, 무단결석을 5.94% (111위)

15.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 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신한국당→국민신당→자유민주연합
- 2) 법안 대표발의 : 7건
- 3) 출결 : 출석158회, 출장 5회, 청가 11회, 결석 28회, 무단결석을 13.86% (35위)

16.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1년
 -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 당선무효 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범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 1심 벌금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 2심 벌금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당→무소속→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1건
- 3) 출결 : 출석83회, 출장 1회, 청가 10회, 결석 10회, 무단결석을 9.62% (55위)
- 4) 2002년 2월 25일 당선무효

17.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 부패·비리 행위

<세무관련 청탁으로 금품수수, 구속>

- 2002년 10월 25일, (주)창윤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 소명 : 평소 후원해 오던 대학동기생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6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임. 이후 친구의 억울한 부분에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담당국장과 사무관에게 소명기회를 한 차례 마련해준 것이 전부. 특히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한복티켓을 준 것은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닌, 오래된 지인관계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달한 것.

■ 도덕성/사질

<비하발언>

-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 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2건
- 3) 출결 : 출석184회, 출장 2회, 청가 10회, 결석 6회, 무단결석을 2.97% (198위)

18.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 정치부패

<불법 대선자금 수수>

-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 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선고유예(벌금 70만원), 항소심에서 확정(02. 06. 24)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4건
-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3회, 결석 16회, 무단결석을 7.92% (73위)

19.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 부패 · 비리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

-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 본인은 언론을 통해 영수증처리를 못해준 것은 총선 때 이미 한도금액을 다 썼기 때문, 4천만원은 후단협 활동에 썼고 2억원은 당에 전달, 대우건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는 2001년 9월이라고 주장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2002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입당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1건
- 3) 출결 : 출석174회, 출장 3회, 청가 18회, 결석 7회, 무단결석을 3.47% (178위)

20.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 도덕성/사질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자질-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검찰개혁 줄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 3) 출결 : 출석167회, 출장 6회, 청가 9회, 결석 20회, 무단결석을 9.90% (53위)

21.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 부패·비리 행위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02. 6. 14. 확정)

▲ 소명 : 경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이 명절 선물로 호피를 두고 갔으나 여비서에게 되돌려 주라고 지시했고 상대방에게도 가져가라고 독촉했으나 결국 1년후에야 가져감.

■ 반의회/반유권자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4건
- 3) 출결 : 출석164회, 출장 5회, 청가 0회, 결석 33회, 무단결석을 16.34% (19위)

22.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 부패·비리 행위

<교비 빼돌려 개인용으로 사용>

-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처 및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검찰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받았지만 신병을 이유로 응하지 않음
- 4년 제 대학을 설립하면서 2년제 대학에서 전용한 예산이 일부 있음을 시인(02. 12. 30 국회 본회의 속기록)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000년 3월 아들이 경산시내 미용실 20여개소를 방문,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용실 원장 1명에게 금품(1백만원)을 제공. 2000년 9월 16일 항소심 벌금 500만원 확정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한국국민당→민주정의당(합당)→민주자유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14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6회, 결석 13회, 무단결석을 6.44% (104위)

23.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 부패·비리 행위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나라종금에서 2억5천만원 수수>

-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아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04. 1. 26)

▲ 소명 : 동생이 2억 5천만원을 받아 박주선 본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국회 본회의 속기록 및 소명자료). 선거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의정활동/개혁성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무소속→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8건

3) 출결 : 출석169회, 출장 4회, 청가 23회, 결석 6회, 무단결석을 2.97% (208위)

24.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 부패·비리 행위

<현대건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 2000년 9월 중순경 (주)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
- 본인은 합법적 정치자금이라며 후원회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후원회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금품모집 및 기부내역 보고서의 기재와 영수증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고, 현대건설측에서는 영수증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 점, 정치자금법상 작성의무가 있고, 영수증의 진위를 판단하는데 근거자료인 회계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점

▲ 소명 : 정몽헌을 2000년도 당시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바 전혀 없음을 다른 의원들이 밝히고 있음. 적법한 후원금을 대가성있는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음. 후원회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음.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1건
- 3) 출결 : 출석190회, 출장 1회, 청가 2회, 결석 9회, 무단결석율 4.46% (151위)

25.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 반의회/반유권자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유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평화민주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 2) 법안 대표발의 : 2건
- 3) 출결 : 출석181회, 출장 3회, 청가 6회, 결석 12회, 무단결석을 5.94%(110위)

26.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 부패·비리 행위

<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 19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 ▲ 소명 :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회장에게 전달했고 지구당 사무실 마련에 사용. 영수증은 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선거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자 회계처리 및 신고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남.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시인하고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

■ 선거법위반

-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 1심 벌금 80만원 선고 (01.10.26)
 - 2심, 일부면소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02.6.24.)
-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
 - 1심 벌금 500만원, 확정 (02. 5. 14)
 - ▲ 소명 : 2000년 새해에 10개 정도의 조기축구를 격려차 방문해 당원의 도움으로 받은 축구공 1개씩을 전해 준 것 / 지역사회 정치지망생이던 계양구청장 심모 비서관이 녹색교통대의 식사 부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나 법원은 송영길 의원과 심 모씨를 점심식사 제공의 공모관계로 보아 유죄 판결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 2) 법안 대표발의 : 6건
- 3) 출결 : 출석173회, 출장 4회, 청가 18회, 결석 7회, 무단결석을 3.47% (189위)

27.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 반의회/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사절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국민통합21→자유민주연합→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0건
- 3) 출결 : 출석157회, 출장 1회, 청가 9회, 결석 35회, 무단결석율 17.33% (13위)

28.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 도덕성/사절

<비하발언>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 2000년 4.13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면서 “제2국민역은 병신이나 다

름없다” 고 발언. 당시 안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상대후보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2국민역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제2국민역은 신체등급상 ‘병중’으로 병신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몸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고 발언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 3) 출결 : 출석190회, 출장 1회, 청가 7회, 결석 4회, 무단결석을 1.98% (251위)

29.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 반의회/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사질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 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 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합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무소속
- 2) 법안 대표발의 : 3건
- 3) 출결 : 출석120회, 출장 3회, 청가 64회, 결석 15회, 무단결석율 7.43% (76위)

30.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세정치행태>

-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통일민주당→무소속→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6건
- 3) 출결 : 출석176회, 출장 4회, 청가 12회, 결석 10회, 무단결석율 4.95% (140위)

3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19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새천년민주당 탈당 (02. 11. 9.)했다가 복당 (02. 11. 26)

■ 도덕성/사절

<저질발언>

- 1997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겉레 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탈당)→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3건
- 3) 출결 : 출석174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17회, 무단결석율 8.42% (68위)

32.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자유당→신한국당(당명변경)→무소속→국민신당→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5건
- 3) 출결 : 출석184회, 출장 5회, 청가 8회, 결석 5회, 무단결석을 2.48% (231위)

33.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 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민주헌정질서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 의정활동/개혁성

- 법안 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6.56%, 무단결석을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신민당→민주한국당→신한민주당→무소속→민주자유당(당명변경)
→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0건
- 3) 출결 : 출석49회, 출장 2회, 청가 1회, 결석 12회, 무단결석을 18.75% (11위)
- 4) 2002년 12월 11일 비례대표 승계

34.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 도덕성/사절

<성희롱 발언>

- 2003년 12월 23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 의정활동/개혁성

<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2003년 12월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색깔론>

- 2002년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 2003년 7년 30일 국방위에서 "NSC 직원 중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요주의인사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다" 발언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자유당(합당)→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3건
- 3) 출결 : 출석76회, 출장 1회, 청가 1회, 결석 4회, 무단결석을 4.88% (147위)
- 4) 2002년 8월 8일 재선거 당선

35.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11월 3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당→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5건

3) 출결 : 출석186회, 출장 2회, 청가 3회, 결석 11회, 무단결석을 5.45% (125위)

36.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공화당→한국국민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0건
- 3) 출결 : 출석187회, 출장 7회, 청가 3회, 결석 5회, 무단결석을 2.48% (221위)

37.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 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 (97.7.4)

■ 도덕성/사질

<방일외교 "등신외교"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 반의회/반유권자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를 함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10건
-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6회, 청가 9회, 결석 4회, 무단결석을 1.98% (266위)

38.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수수>

-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 ▲ 소명 : SK, 삼성, 현대자동차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개인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관행에

비취볼때 탈법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님. 한화와 금호는 상대방이 영수증 처리를 원하지 않음.

■ 도덕성/사절

<부적절 처신 : SK수사 관련 검찰 압력 전화>

-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 의정활동/개혁성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 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 2) 법안 대표발의 : 6건
- 3) 출결 : 출석182회, 출장 0회, 청가 6회, 결석 14회, 무단결석을 6.93% (90위)

39. 이상희 (무소속<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 부패·비리 행위

<텔슨전자로부터 2천달러 뇌물수수>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 수수사실을 인정하는 2천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유죄(선고 유예 추정 238만원)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무소속
- 2) 법안 대표발의 : 9건
- 3) 출결 : 출석174회, 출장 0회, 청가 16회, 결석 12회, 무단결석을 5.94% (113위)

40.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 부패·비리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

-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
 -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 ▲ 소명 : 장씨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3백만원이며, 후원금통장에 3백만원을 무기명 입금조치한 후 영수증 처리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벌금조치를 받았으나 공여자의 구속 등으로 인해 영수증 처리가 미비했던 것이며, 후원회 사무국의 행정착오였음.

■ 반의회/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3건
- 3) 출결 : 출석165회, 출장 4회, 청가 14회, 결석 19회, 무단결석을 9.41% (58위)

41.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 반의회/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19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19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2002년 10월 14일 자민련 탈당,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자민련과 민주당이 2002년 5월 지방선거 직전 또다시 공조를 하자 5월 21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부족하다며 지방선거 이후 거취 문제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결국 다섯번에 걸친 자민련과 민주당의 공조와 공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념과 노선이 맞지 않아 탈당함.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6건
- 3) 출결 : 출석176회, 출장 1회, 청가 6회, 결석 19회, 무단결석을 9.41% (60위)

42.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국민신당(합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2건
- 3) 출결 : 출석167회, 출장 1회, 청가 20회, 결석 14회, 무단결석을 6.93% (87위)

43.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 반의회/반유권자

<색깔발언>

-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 도덕성/사절

<폭력행사> 전경폭행시비

-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하면서 경비중인 전경 폭행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0건

3) 출결 : 출석190회, 출장 0회, 청가 0회, 결석 12회, 무단결석을 5.94% (107위)

4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사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한 것. (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

-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58회, 출장 19회, 청가 19회, 결석 6회, 무단결석을 2.97% (197위)

45.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0건
- 3) 출결 : 출석155회, 출장 1회, 청가 3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을 21.29% (4위)

46.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 도덕성/사절

1.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 민정당 원내총무로 있던 89년 11월 정호용 의원 사퇴와 관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이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민화위의 결론부 터가 잘못됐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색깔론 발언>

-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 200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부 정당들이 사상적 성향도 검증되지 않은 운동권 의식화 세력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으며, 이념적 혼란과 갈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지역주의 조장 발언>

- 2000년 3월 20일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 1998년 5월 28일, 구리시 손학규 경기도지사후보 지원유세에서 "영남정권 37년 치하에 이어 호남정권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경기도가 나아진 게 뭐냐. 경기도의 자존심은 다 어디에 갔냐"
- 1998년 5월 23일, 경기 안양시 문예회관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서 "국민회의가 전북 임실 출신이라는 말이 나도는 임창열씨를 경기지사 후보로 내세워 호남 정권의 식민통치 총독으로 앉히려 한다"
- 1998년 3월 31일, 문경 재보선 정당연설회에서 "현정부는 국가 주요 보직에서 경상도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고 전라도 사람으로 짝꿍이하고 있다"

<철새정치행태>

- 99. 12.. 한나라당 탈당, 00년 1월 자민련입당, 01. 9. 12 자민련 제명, 02. 11. 하나로국민연합창당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하나로국민연합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0건
- 3) 출결 : 출석94회, 출장 7회, 청가 77회, 결석 24회, 무단결석을 11.88% (44위)

4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 반인권전력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무소속→민주정의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 3) 출결 : 출석81회, 출장 0회, 청가 0회, 결석 1회, 무단결석을 1.22% (288위)

48.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 부패·비리 행위

<현대비자금 사건 관련 구속>

-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청탁사실 시인

▲ 소명 : 학교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W사는 현대 건설 협력업사로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다가 큰 적자를 보았는데 다른 공사 하도급을 받으려고 해도 현대건설측에서 응찰자체를 제한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김운규 사장에게 위 사실을 전하고 W사가 응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전화할 사실이 있을 뿐

■ 도덕성/사질

<음주운전>

- 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11건
- 3) 출결 : 출석199회, 출장 0회, 청가 0회, 결석 3회, 무단결석율 1.49% (284위)

49.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가 기소되어
 -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08. 21)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국민신당→새천년민주당→무소속→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14건
- 3) 출결 : 출석182회, 출장 3회, 청가 4회, 결석 13회, 무단결석을 6.44% (103위)

50.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 선거법위반

-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
 -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 2심 원심파기,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01. 7. 3)
 - 상고심에서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 1. 22.)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평민당→신민당→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1건
- 3) 출결 : 출석88회, 출장 4회, 청가 2회, 결석 3회, 무단결석을 3.09% (194위)
- 4) 2002년 1월 30일 16대 국회의원 당선무효

51.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 반의회/반유권자

- 2001년 1월 1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민주당으로 복당

■ 의정활동/개혁성

<의정활동>

- 법안 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0.79%, 무단결석율 15.84%(22위, 202회 중 32회 결석)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0건
- 3) 출결 : 출석143회, 출장 7회, 청가 20회, 결석 32회, 무단결석율 15.84% (22위)

52.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세정치행태>

-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받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12.29)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자유민주연합→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9건
- 3) 출결 : 출석180회, 출장 0회, 청가 17회, 결석 5회, 무단결석을 2.48% (236위)

53.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 부패·비리 행위

<굿모닝시티 뇌물 등>

- 2002년 3월 (주)굿모닝시티 대표이사 윤창열에게 5억원을 요구해 윤창열로부터 건축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중구청장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자신의 집에서 현금 2억 5,000만원 받음. 2002.12. 같은 방법으로 2억원을 요구해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아 합계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대우건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02년 12월 새천년민주당사에서 누보코리아 대표이사 장신호로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금 1억원을 건넬받았음에도 5,000만원만 영수증 처리
- 2003년 4월 대우건설 대표이사 남상국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남상국의 부탁을 받은 안홍개발 회장 장상홍으로부터 4월 초순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씩 합계 3억원을 받음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 1) 1997년 2월 경 제주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성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98. 9.3)
- 2) 1995년 8월 경 경성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중인 탄현아파트 신축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고양시장에게 청탁하여 사업계획 승인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받은 특가법(알선수재)위반 혐의
 - 2심 : 유죄선고(01.7.5.)
 - 3심 :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02.10.8) 1997년 2월 경 3,000만원 수수부분은 임의성이 의심되어 무죄선고 / 1995년 8월 경 1,000만원 수수부분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됨(02.10.8)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무소속→신민당→평화민주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6건
- 3) 출결 : 출석159회, 출장 8회, 청가 6회, 결석 29회, 무단결석을 14.36% (31위)

54.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 반유권자 행위

-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 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무소속→민주자유당→통일국민당→무소속→국민통합21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92회, 출장 1회, 청가 93회, 결석 16회, 무단결석을 7.92% (72위)

55.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친구갑, 5선, 16·15·14·13·12대)

■ 선거법 위반

-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
 - 1심 벌금 1,500만원(2001.6.29)
 - 2심 징역1년(집유2년)(2001. 11.7)
 - 3심 상고기각 확정(2002.6.28)
- 당선인이 선거법위반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 1심 벌금 70만원(01.6.29), 항소기각으로 확정

■ 도덕성/사질

<북풍관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

-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 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2000.3.17)
 - 2심 벌금 1,000만원 선고(2001.11.9)
 - 3심 상고기각, 확정(2003.12.30)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1건
- 3) 출결 : 출석89회, 출장 10회, 청가 5회, 결석 7회, 무단결석을 6.31% (106위)

4) 2002년 6월 28일 당선무효

56.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 반인권전력

-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 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 반의회/반유권자

<색깔론>

- 99년 11월 자신이 안기부에 근무할 때 서경원 사건,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 이 선실 사건 등을 조사했다며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서경원으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짹짹 빌었다. 이게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고 발언
- 이 발언에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 도덕성/사질

<수사 및 재판 출두 불응>

-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2002년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 3) 출결 : 출석165회, 출장 5회, 청가 9회, 결석 23회, 무단결석을 11.39% (46위)

57.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수수혐의로 구속>

-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씩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앓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04. 1. 12)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
 -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
 - 항소기각(01.7.3), 상고심에서 기각(01.12.14)되었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무소속→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2회, 청가 10회, 결석 28회, 무단결석을 14.74% (29위)
- 4) 2001년 9월 3일 16대 국회의원 사직, 2001년 10월 25일 보궐선거 당선

58.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합당)→민주자유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0건
- 3) 출결 : 출석148회, 출장 4회, 청가 5회, 결석 9회, 무단결석을 5.42% (129위)
- 4) 2001년 1월 4일 비례대표 승계

59.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 부패·비리 행위

<대전법조비리>

- 19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1993년 9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 반인권전력

<부림사건 수사지휘검사>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의정활동/개혁성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

- 오마이 뉴스가 2003년 7월 17일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도덕성/사질

<압력성 전화>

- 2003년 7월 1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0건

3) 출결 : 출석196회, 출장 2회, 청가 0회, 결석 4회, 무단결석을 1.98% (247위)

60.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탈당)→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 3) 출결 : 출석188회, 출장 3회, 청가 3회, 결석 8회, 무단결석을 3.96% (163위)

6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 정치부패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03.6.13),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뒤 모두 돌려줌
-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02.03).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1건
- 3) 출결 : 출석182회, 출장 0회, 청가 10회, 결석 10회, 무단결석을 4.95% (134위)

62.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함께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
 -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 선고(01.5.18)
 -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발언>

-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뿔뿔 뿔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위화감 조성 발언>

-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 도덕성/사질

<욕설, 저질 발언>

-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 9. 17)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정의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1건
- 3) 출결 : 출석178회, 출장 5회, 청가 15회, 결석 4회, 무단결석을 1.98% (248위)

63.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 부패·비리 행위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 3) 출결 : 출석153회, 출장 0회, 청가 15회, 결석 34회, 무단결석을 16.83% (15위)

64.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 반의회/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0건
- 3) 출결 : 출석185회, 출장 4회, 청가 9회, 결석 4회, 무단결석을 1.98% (246위)

65.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 반의회/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 1심 벌금2백만원 선고(97. 9. 29)
-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새정치국민회의(당명변경)→새천년민주당→무소속→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1건
- 3) 출결 : 출석44회, 출장 0회, 청가 0회, 결석 2회, 무단결석율 4.35% (159위)
- 4) 2003년 4월 23일 재선거 당선

66.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 선거법위반

- 법정선거비용 초과(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
 - 1심 벌금 500만원 선고(98. 1. 26)
 - 항소 및 상고 기각 확정(99. 3. 9)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덧붙임.
- 19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

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기본사항

- 1) 당적변동 : 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3건
- 3) 출결 : 출석109회, 출장 1회, 청가 3회, 결석 5회, 무단결석을 4.24% (160위)